

새 천년을 꿈꾸는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사람들이 천년을 넘게 산다고 믿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 천년 나무로 지정되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나무와 관련된 핵심 사고로 역사, 신화, 인류의 진화, 종교, 생활권 보호 등을 들었지만, 느티나무에 오면 이런 생각들이 수렴된다. 느티나무는 우리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 보았고, 신화를 품었으며, 우리 민족을 진화시켜 왔을 뿐 아니라 종교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 역사를 지켜 본 나무

삼국사기를 보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전쟁이 나면 골짜기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의 이런 경험이 문화적으로 굳어지면서 우리 민족은 자손만대 번성할 이상적 삶의 모델로 '뒷산(鎭山)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좌우의 산줄기(左靑龍右白虎)가 잘 감싸주며 앞이 훤히 보이지 않도록 앞산(案山)이 적당히 막아주는 자리'를 역사적 이상향으로 꿈꾼 것이다. 풍수지리 운운하지만 이론적인 구성은 어떻든 그 중심에는 우리 지형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구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지형은 외적을 막거나 피하는데 이상적이다. 더구나 이런 지형은 이 땅의 약점인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북서풍도 막아주는데, 사람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는 좌우의 산줄기가 균형이 잡혀야 하고 앞산이 너무 높지 않아 햇벌이 잘 들어야 한다. 이상이 땅에서 펼쳐지기는 어려운 일, 이를 보완하고 완성하는데 가장 많이, 또 가장 효율적으로 쓰인 나무가 느티나무이다.

지형이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곳은 주로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느티나무는 줄기가 든든하고 잎과 가지가 넉넉하게 발달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의 지리와 지형을 보고 느티나무를 이용해서 새집을 짓듯이 삶의 보금자리를 가꾸어왔던 것이다. 더구나 마을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느티나무가 제격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을 구획을 나누기도 하였다. 실제로 예전에 초가집이 많았을 때 아랫마을에 붙은 불이 바람으로 확산되다가 큰 느티나무에 걸려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신령스럽게 대했다는 증언도 있다. 신라 역사를 잉태한 계림에도 느티나무가 많다. 천년을 살 수 있는 이런 느티나무들은 왕도에 있던 마을에 있던 우리 역사를 지켜 본 나무들이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삶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다시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이렇게 느티나무가 정자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임경빈 선생님은 누구나, 어떤 이야기나 받아주는 아주 민주적인 나무라고 하면서 느티나무를 보고 있으면 위대한 생명의 율동을 느낀다고 하셨다. 필자는 이런 느티나무를 보며 현대 사회 네트워크의 홈페이지 역할과 같은 기능을 했다는 것을 느낀다. 지리와 지형에 적응하며 나무를 이용해 기후의 단점을 보완해 새 집 같은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안겨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현대 용어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닌가? 과거 수천 년간 우리 역사를 지켜 본 느티나무를 보며 새 천년의 모델을 생각한다.



글 신준환
국립수목원장
kecology@forest.go.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산림보전부장 등을 지냈다.



우리 미래를 열어주는 나무

이렇듯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느티나무는 사람을 위해 우주를 열어주기도 한다. 마을에 있는 큰 느티나무는 당산목(堂山木)이 많은데, 이 당산목은 우리 조상들이 우주를 열어주어 우리의 뜻이 하늘에 닿도록 해준다고 믿은 나무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당산목에 빌면서 하늘의 뜻을 받아 땅에 잘 적응하며 따스롭게 살아가 자손이 번성하는 미래를 꿈꿔왔다.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느티나무는 '온생명'의 중심이기도 하여,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못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유기물을 생산해준다. 옛날 어려운 시절 배고픈 사람들은 느티나무 새 잎으로 떡을 해 먹었고, 아픈 사람들은 약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래서 새 잎이 나오는 양을 보고 풍흉을 예견하는 민속도 생겼을 것이지만,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현대에도 느티나무에서 폐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을 찾아내고 있다.

느티나무는 삭막한 현대 생활에도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 정서를 대변하기도 한다. 필자가 영광 범성포에 갔을 때 언덕 위의 큰 느티나무를 보고 언덕 앞마을과 뒷마을의 남녀가 만나는 장면이 떠올랐다. 달이 뜨면 더 좋았겠지만, 넉넉한 바다와 임의 품만 있어도 그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잔가지에 잎이 비교적 작고 조밀하게 발달하는 느티나무가 드리워주는 넉넉한 그늘을 사랑하지만, 필자에게는 예술적 감성도 키워주는 나무이다. 고목의 줄기에 발달한 큰 혹을 보거나 직선을 희롱하는 곡선의 울동을 보노라면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론에서 읽은 파격의 미가 흥겹게 살아난다. 이런 아름다운 괴이함이 괴목(槐木)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여 정승나무를 꿈꾸게 했는지도 모른다. 원래 중국에서 정승을 상징했던 회화나무는



▶ 1 직선을 희롱하는 느티나무 줄기의 파격의 미 2 원줄기가 곧게 올라간 느티나무 조림지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기에 회화나무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세 그루 심고 삼괴정이라 일컬으며 현세에 멋을 부리기도 하고 미래에 자손이 잘되기를 희망하지 않았을까?

귀중한 가치 보전을 위하여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른 나무의 보호도 없이 홀로 배를 내놓고 있는 느티나무가 배를 내놓고도 안심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는 광경을 보면 우리 역사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이 적절한 공진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시멘트와 각종 시설로 느티나무가 신음하는 것을 보며 현대사회에 알맞게 사람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새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느티나무는 몸은 썩어도 썩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고재'라 하며 전통가구 장인들이 아주 귀하게 쓴다고 한다. 말하자면 수백 년을 넘긴 나무의 사리가 되는 셈이다. 사실 알고 보면 느티나무는 사리와 관계가 깊다. 몇 년 전에는 천년고찰 부석사의 기둥이 싸리나무로 되어있다고 했었다. 우리나라 싸리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기적이니, 열대지방에서 수입했다니 말이 많았지만, 나무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목재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느티나무였다고 한다. 그 후 다방면으로 추적해 본 결과 예전에 사리를 탐에 봉안하기 전에 나무 상자에 임시로 보관했는데, 사리가 귀중한 것이니 나무 상자라도 아무 상자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느티나무 상자에 보관했다고 한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사리함을 만드는 나무, 즉 사리-나무가 싸리나무로 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가장 유력한 설명이다.

사찰에서 느티나무가 소중하게 다루어졌으니 사찰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 숲은 인위적으로 보호되었을 확률이 높다. 사찰 주변의 울창한 숲을 보고 자연림의 원형이라고 조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유래를 밝힌 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느티나무의 어원을 누런 단풍에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붉은 단풍이 드는 나무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유전적인 경향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느티나무의 목재 색을 보고 붉은 느티나무와 푸른 느티나무로 나누고 붉은 느티나무를 훨씬 귀중하게 다루는데 최근 기술발달로 인해 그 격차는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느티나무의 가지도 마을의 정자나무처럼 항상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곧게 올라가 미끈하고 원통형 줄기를 발달시키는 나무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과 이들의 조합을 잘 연구하여 천년 고찰이 든든한 배흘림기둥을 자랑하듯이 새 천년의 미래를 받쳐줄 기둥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